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삶

5/19 월

단 4:34-35

34 “그날들이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존하시는 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경의를 표하였다.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35 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서나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니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할 이가 아무도 없다.

사 64:8 그러나 이제 여호와님, 주님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이요 주님은 저희 토기장이이시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사 29:16 너희는 일들을 뒤집어엮는구나! 토기장이가 진흙처럼 여겨질 수 있느냐?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만든 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할 수 있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는 총명이 없다.” 할 수 있느냐?

계 4:11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계 5:13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 - 5 주차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엡 1:4-5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5/20 화

롬 9:19-21

19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20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1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출 33:19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선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선포하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딤후 2:20-21

20 그렇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되고 어떤 것은 천하게 됩니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

엡 2:4

4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21 수

마 9:13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눅 15:20, 22-24

20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24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마 12:7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뜻을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료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5/22 목

롬 9:15-16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벤전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벤전 2:10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긍휼을 받았습니다.

신 4:29 거기서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온

마음과 온 혼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 55:6 찾을 수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렘 29: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또 발견할 것이다.

5/23 금

롬 9:18, 23

18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롬 8:29-30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롬 9:11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롬 11:5, 30-32

5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30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받았습니다.

31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도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3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5/24 토	5/25 주일
엘 2:4-5 4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롬 11:3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마 9:13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막 5:19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 그대의 친척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딤후 3: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 45:8 위에서부터 떨어뜨려라, 하늘들이 구름이 의를 흘려내리게 하고 땅이 열려 구원과 의를 내게 하며 그것들이 함께 솟아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눅 10:25-37 25 보아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라고 하시자, 27 그가 대답하였다. “‘그대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8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옳바로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살 것입니다.” 29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30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 버렸습니다.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으며, 32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3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으며, 35 이튿날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36 그대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37 그러자 그가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도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